

시장환경 급변에 따른 對중국 투자전략 재편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투자기준)는 398건, 1억 8,33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건수 면에서는 전년대비 71.6%나 증가하였지만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70.4%의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들의 대규모 투자가 감소한 반면에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공업 등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대기업들은 국내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신규투자를 자제한 데다가 해외로부터의 차입비용이 크게 늘어나 차입을 통한 해외투자를 단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¹⁾.

중국 경제의 불안 지속도 한몫

대기업 투자 감소는 스스로의 문제 외에도 중국의 금융위기 및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1997년 이후 중국 내수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다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세를 유지함으로써 본격적인 디플레이 국면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기업 및 금융부문 개혁 부진으로 GITIC 파산 등 경제체제의 불안 요인 가중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²⁾.

1) 현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통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는 총괄적인 분류만 가능하며, 각 국가별로는 집계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對중국 투자를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실적을 통해 이에 갈음할 수 있음. 1998년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46억 4,475만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35억 8,932만 달러를 기록, 22.6%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억 3,469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6억 8,832만 달러로 오히려 60.5%의 증가율을 보임.

2) 최근 중국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1999년 對중국 외국인투자는 412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3%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

이러한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중국 對중국 투자잔액은 4,173건, 41억 1,491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 가운데 중국 비중이 각각 44.4%, 18.4%를 차지하고 있다. 건수 면에서는 세계 1위, 금액 면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이다.

<표 1> 우리 나라의 연도별 對중국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순허가기준		순투자기준		투자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8	2	3.4	0	0.0	0	0.0
1989	12	9.3	7	6.4	7	6.4
1990	37	52.5	24	16.0	31	22.3
1991	112	81.3	69	42.5	100	64.8
1992	264	216.8	170	140.5	270	205.3
1993	616	598.2	377	261.7	647	467.0
1994	943	724.5	836	622.3	1,483	1,089.3
1995	772	1,072.9	733	809.5	2,216	1,898.8
1996	829	1,466.7	721	799.8	2,937	2,698.5
1997	723	799.2	606	613.2	3,544	3,311.7
1998	300	804.1	232	619.8	3,766	3,931.6
1999	502	333.3	398	183.3	4,173	4,114.9
총계	5,113 (46.0)	6,161.9 (18.5)	4,173 (44.4)	4,114.9 (18.4)	-	-

주: 괄호 안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

지역별로는 산둥(山東),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이 최다

199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내 최대 투자지역은 산둥(山東)으로 11억 6,999만 달러를 기록,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이어 텐진(天津), 장수(江蘇), 상하이(上海)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對中 투자 초기 지리적 인접성, 재중 한국인(조선족) 밀집 여부, 재한 중국인의 고향 배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산둥(山東)과 동북3성(吉林, 遼寧, 黑龍江)에 집중되었던 상황과 비교한다면 중국 내수를 공략하기 위한 대도시나 남부 연해지역의 투자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도 중국 내에서 지역별 편중도가 심하고 일본, 대만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소비수준이 낮은

동북지역에의 투자비중이 높아 투자 이익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1999년 말 현재 금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투자지역의 집중도는 93.8%로 중국의 10대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의 비중(1992~97년 기준)이 83.8%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편중의 심화는 국내기업간의 경쟁을 불리일으키는 문제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다만 1999년 중 이들 지역의 투자 비중이 86.4%를 기록, 투자 편중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표 2> 우리 나라의 對중국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

	1998		1999		1999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山 東	81	156	164	43	1,278	1,170
遼 寧	35	29	73	30	850	432
吉 林	29	5	58	16	465	152
天 津	24	149	15	51	406	561
北 京	10	31	14	19	232	332
黑 龍 江	7	12	13	3	207	144
江 蘇	14	72	28	38	216	479
上 海	12	32	14	38	144	444
廣 東	5	76	5	2	93	184
浙 江	8	62	13	3	86	147
총 계	242 (93.0)	631 (98.8)	411 (96.8)	289 (86.4)	4,231 (94.0)	4,313 (93.8)

주 1) 총 투자기준임.

2) 괄호 안은 총 투자에서 상기 10개 투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재가공.

한편,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81.4%(총 투자, 금액 기준)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립금속이 29.6%로 가장 많았고, 섬유 의복(12.5%), 석유화학(11.2%), 기계장비(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제조업 분야별로 본 우리나라 對중국 투자의 특징은 건수 면에서 보면 경공업 분야의 투자가 전년 대비 세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많았고 금액 면에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많은 중공업 분야에서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전히 경공업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기업들로서는 점차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투자 업종의 중공업화, 서비스화, 첨단화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다³⁾.

<표 3> 우리 나라의 對중국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

			1998		1999		1999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품	10	7	25	8	281	169
		섬유의복	54	20	92	12	760	422
		신발가죽	10	9	19	10	310	215
		목재가구	9	1	9	1	173	48
		종이인쇄	4	5	3	1	67	55
		기타제조	51	53	144	31	763	369
	경공업 계		138 (69.0)	95 (17.6)	292 (79.8)	63 (25.5)	2,354 (64.3)	1,278 (36.3)
	중공업	석유화학	12	53	7	48	277	397
		비금속광물	2	7	8	3	136	203
		1차금속	1	20	5	8	125	208
		조립금속	33	266	41	94	572	1,098
		기계장비	14	100	13	31	195	332
중공업 계		62 (31.0)	446 (82.4)	74 (20.2)	184 (74.5)	1,305 (35.7)	2,238 (63.7)	
제조업 계			200	541	366	247	3,659	3,513
비제조업	광업	0	17	4	4	22	38	
	임업	1	0	1	0.1	4	0.5	
	수산업	4	0.4	3	0.4	48	9	
	건설업	1	16	1	12	34	157	
	운수업	2	3	6	2	36	34	
	무역업	18	3	8	1	84	24	
	기타	16	51	22	23	346	538	
비제조업 계			42	90	45	42	574	801
총 계			242	631	411	289	4,233	4,313

주 1) 총 투자기준임.

주 2) 제조업 투자가운데 기타제조업의 경우 반드시 경공업 투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봉제, 완구 등 경공업 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설명의 편의상 경공업으로 편입하여 집계함.

자료 : <표 2>와 동일.

향후 중국의 투자환경, 상당한 변화 예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투자정책은 經濟特區, 經濟技術開發區 등을 지정해 놓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우대, 인프라 제공 등의 지역별 우대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우대정책은 1990년대 중반부

3)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업종별 해외투자 통계 분류 기준상 정보통신, 인터넷 등 新산업 분야의 투자는 기타 제조 혹은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어 투자 패턴의 변화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통계를 총괄 집계하는 수출입은행에서는 업종별 통계 분류기준을 재작성하고 있음.

터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중국 정부는 ‘外國人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 및 ‘外國企業投資產業指導目錄’을 공포하고, 산업·업종·품목별로 ‘장려·제한·금지’의 3개 업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선별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펴하였다. 1998년 1월에는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 장려품목과 이미 중국기업이 생산 가능하거나 공해 과다유발 업종에 대한 제한품목을 추가하여 수정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현재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200여 품목에 대한 증설투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내용으로써, 향후 對중국 투자진출 추진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라 하겠다.

향후 중국 투자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우대조치들은 축소 혹은 폐지되고 점진적으로 내·외국인 동등 대우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투자 장려분야도 중국 정부가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는 것이 장려분야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투자우대정책의 골격은 장려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와 정도에 있으나 현재 이러한 투자우대조치의 철폐가 중국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유기업의 역차별 해소로 현재 중국의 최대 경제 난제인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강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처럼 투자우대조치를 축소 혹은 철폐하는 대신 중국은 시장개방과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과의 WTO 가입 합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정책방향을 잘 알 수 있다. 그 동안 투자를 제한해 왔던 통신, 유통, 금융 분야 등의 점진적 개방 일정이 구체화된 것이다.

시장진입은 쉬워지나 경쟁 심화로 생존 어려워

앞서 말한 대로 향후 WTO 가입, 중국 경제의 회복국면 진입 등의 호조건으로 금년부터 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對중국 투자가 다시 활기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의 투자 정책과 중국 시장여건의 변화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변할 전망이어서 투자 여건은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 정보력에서의 우위와 선진기술 사용, 보급확대 및 싼 원부자재의 수입증가 등으로 중국기업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은 앞으로 주력 경쟁상대로 부상할 중국 내 동종업체의 기술수준 및 제품 생산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유

통, 금융, 통신 등 서비스부문과 첨단제품 생산업종의 경우 서방기업들의 투자 러시로 이들과의 경쟁 또한 불가피한 실정인바 여타국 경쟁기업의 진출 동향 파악 또한 중요하다. 결국 막연한 중국 시장의 잠재력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여주기만 할뿐이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 가능성 여부 및 경쟁국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간 산업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과거 低생산비와 국내 유희시설의 이전 효과를 노린 단순경공업분야의 투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울 뿐더러 투자한다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특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동향과 시장 흐름에 편승하여 기업운영 전략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현지 경영자의 자질도 중요하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경영자의 잘못된 정책 판단은 현지기업의 경영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공서열과 인맥위주의 인사관리로 현지경영자를 파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기업의 對중국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향후 중국 투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은 급변할 것이다. 중국 투자정책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對중국 투자의 특징인 경공업과 일부 중공업부문의 업종별 편중, 산둥, 베이징, 톈진과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지역 편중, 가공수출형을 위주로 투자패턴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출업종에 있어서는 전통 제조업 분야보다는 정보통신, 유통, 인터넷 등 新산업 분야에,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는 황허(黃河) 이북에서 탈피하여 남부 연해 및 중서부 내륙지역을 적극 고려하는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겠다.

자동차, 전자 등 전통 설비제조 분야의 진출은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실패할 경우 母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수급에 대한 예측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진출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최근 국내 자동차기업의 앞다툼 중국 진출로 금세기 최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

진입을 피하고 있으나 성공을 거둘 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GM, 포드, 혼다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영업망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들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중국계 자동차기업의 제조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주자로 뛰어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품질 면에서는 서방기업에, 가격 면에서는 중국기업에 밀려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전자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하이얼(海爾), 창홍(長虹) 등과 같은 중국의 전자제품 생산기업은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넓혀가고 있다.⁴⁾ 게다가 이들의 자국 내에서의 저가 판촉 공약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외국계 전자제품 생산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 정보화 등에 힘입어 중국 경제 또한 이에 편승하여 섬유, 가전 등 기존의 전통 제조업분야에서 정보통신과 인터넷, 환경, 인프라 등 신흥 산업으로의 세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 환경산업 등 기술력을 앞세운 중소 벤처기업의 약진으로 우리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의 對중국 진출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대규모 SOC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중국의 중점 발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 농업과 환경 부문의 진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의 급팽창 예상에 따른 유통, 광고, 흡쇼핑, 택배 등이 신규 유망 분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분야에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은 향후 중국의 WTO 가입 일정에 따라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점차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서방 금융기관의 인민폐 영업을 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취약성을 이유로 국내 금융기관은 여전히 허가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폭을 넓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인민폐 영업가능 지역도 현재의 상하이(上海) 등 일부 지역에서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끼리의 편중 진출로 경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금융기관들과의 경쟁도 힘겨운 상황에서

4) 중국 전자제품 생산기업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하이얼로 알려져 있음. 하이얼은 1993년 독일에 진출했고, 현재 미국과 일본을 공략중임.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냉장고의 60%가 하이얼 제품이고, 미국에서는 이미 36~180ℓ 급 소형 냉장고 시장의 2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짐(동아일보 2000.2.14).

일부 지역을 놓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한다면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많은 산둥(山東),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진출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율 혹은 업계의 자율조정을 통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하나씩 거점을 선정하고 이들 진출 금융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 공존공생의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투자진출 지역 선정 시에도 지리적 가까움, 단순한 조선족 활용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 투자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진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해당 지방정부의 우대조치, 인프라, 소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점차 연해지역 위주에서 내륙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가 연해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향후 對중국 투자가 늘면서 연해지역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포화단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연해지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들의 경우, 거대한 자본과 영업력을 갖춘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 지가 관건이다.

결국 우리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연해지역 진출은 그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연해지역보다는 내륙으로 진출하되 교통이 편리한 후베이(湖北) 등 창장(長江) 연안을 생산 거점으로 삼고 주변 혹은 연해지역을 판매거점으로 삼아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全善俊】